



LSI본부 대표이사로 취임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준비하고 있다.

진부사장은 “메모리에서 축적한 세계 최고의 생산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면 비메모리분야에서도 단기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2002년에는 세계 10위의 비메모리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미국의 DEC 등 선진업체와 전략적 제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비메모리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사급 연구 인력 1백여명을 포함, 약 1천3백명의 기존 연구원들을 정예화하고 올해 안에 박사급 85명을 포함, 약 3백명의 연구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분야를 중앙처리장치(CPU), 멀티미디어 반도체(MEDIA) 등 5대 핵심 제품군으로 나누고 각 분야별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창조를 위해선 발상법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진부사장은 최고의 발명은 일상생활 속에서 상식을 뒤집을 때 나온다고 확신한다.

그의 좌우명은 ‘일일학 일일신(日日學 日日新)’으로 쉬지 않고 공부하는 것만이 급격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위치까지 올랐지만 그는 지금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앞장선다. 현재 국내 24건, 해외 4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진부사장의 반도체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다. 진부사장은 “비메모리분야는 고급 인력확보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열기가 식어가면서 우수인력 유치가 무척 어렵다”며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분야에 우수한 젊은 인력이 보다 많이 도전해 줄 것을 당부한다.

93년 11월 세계적인 경제 월간지 「포춘」지에 의해 아시아의 10대 스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국보 1호 박사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진대제부사장은 탁월한 기술력 이외에도 경영관리 능력 등을 인정받아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에 이르기까지 삼성그룹 내에서도 초고속 승진을 계속하고 있다. 부인 김혜경여사(44세)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 제30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기술상수상자

陳大濟씨 <삼성전자(주)대표이사 부사장>

「비메모리」 제2반도체 神話 도전

한 국의 반도체산업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 놓고 이제 비메모리의 제2 반도체 신화를 창조해 가고 있는 삼성전자(주) 진대제(陳大濟·46) 반도체총괄시스템LSI 대표이사 부사장이 제30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기술상부문을 수상했다.

진부사장은 “저와 함께 지난 10여년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오신 많은 선·후배 동료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오히려 반도체 특히 메모리분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뛰어난 기술, 과학적 재능과 적절한 시점에 과감한 투자를 한 여러 경영자들의 역량이 집결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한다.

진부사장은 88년 1메가 D램을 개발했고, 90년에는 세계 최초로 양산용 16메가 D램 개발에 성공했다. 그후 64메가 D램, 2백65메가 D램, 1기가 D램을 잇달아 개발하면서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메모리업체로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96년 11월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5백MHz 알파칩 개발에도 성공했다. 진부사장은 지난 1월에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분야를 총괄하는 시스템